

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

2025년 9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때의 일이다.

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지개벽되어가는 전변상을 보시며 군인대중과 청년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, 불과 한해전만 하여도 년년이 들이닥치는 큰물로 하여 불모의 땅으로 취급되던 이 섬지구가 지방경제의 급진적인 발전과 지역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을 주도할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히 큰 《보물섬》이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.

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은 우리 당이 지역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일 큰 규모로 조직한 사업이고 그 결과가 지방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과 직결되는 중대사항인것으로 하여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.

그 말씀을 새겨안은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.

자신께서 겪는 천만고생은 모두 묻어두시고 인민들에게 최상의것만을 안겨 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,

이날 일군들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관, 인민에 대한 헌신의 세계를 또 한번 체감하며 다시금 확신하였다.

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인민의 아버지의 위민헌신의 자욱을 따라 이 땅에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세계가 부러워할 눈부신 미래가 더욱 앞당겨지리라라는것을.